

농어촌공사 충북본부, 우기 대비 '현장경영회의' 실시

✎ 이지효 기자 | ⓒ 승인 2025.06.11 15:53

음성 금왕읍 찾아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사례 시찰



음성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 모습. /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

[중부매일 이지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는 11일 음성군 감곡면 '행복이음센터'에서 '2025년 상반기 충북지역본부 현장경영회의'를 개최했다.

이날 각 지사 사업 현장 및 시설에 대한 '우기 대비 계획'을 점검했고,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본부-지사 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또 '재해 대비 점검 계획', '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', '고객만족도 개선 방안'에 대한 발표를 통해 충북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

회의에 앞서 최현수 본부장 등 일행은 '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'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AI CCTV, 중장비 접근 감지센서 등 '스마트 안전장비'적용 사례를 시찰했다.

최 본부장은 "충북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사고 유발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해서 농업인 등 지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"고 강조했다.

또 "현장에서 다양한 의견 교류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통해, 농촌이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중지를 모아 보자"고 말했다.

한편 '행복이음센터'는 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시행한 '음성군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(2020~2024년)'을 통한 완공된 건물로서 탁구장, 카페(베이커리) 등 복합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.



이지효 기자 jhlee@jbnews.com